

19학년도 6평 생활과 윤리 분석

Part I 총평

1. 총평

- (1) 강사로서 휴 다행 : 내가 가르친 부분에선 오개념 없다!
- (2) 일단 9평전까지 생운은 방심하겠군(그러다가~~)
- (3) 언제적이었나?

[표] 생운 1컷 변화

	6월	9월	11월 대수능
14학년도(첫 시행)	45	47	47
15학년도	43	47	45
16학년도	47	41	50
17학년도	44	43	47
18학년도	45	47	50
19학년도	?	??	???

2. 난이도는?

- 1) 작년 수능과 비슷 혹은 살짝 어려울 듯(수능 1컷 50, 2컷 47)
- 2) (Zola가 문제 풀고 생각한) 1컷은 48~50점(단, 6평은 수능보다는 조금 내려감. 특히 올해 고3들이 3월과 4월 교육청 때 보여준 1컷 실력은 고4 이상에게 희망적임. 하지만 고3들 탐구는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므로 수능 때 방심하면 고4도 고3한테 털릴 수 있음.)

3. New Face를 찾아라!

- 1) 기존(작년) 교과서에 있으나 이번에 처음 등장한 문제-없음
- 2) 새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번에 처음 등장한 문제-없음
- 3) 기타-다문화가 오랜만에 등장함!!

4. ebs 죽이기?

ebs를 참고한 문제들이 있지만 고난이도가 아니다. 결국 ebs를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

5. chosun-language user(조선어 유저 또는 조선어 사용자)를 위한 문제(괄호는 살짝 애매함)

문제 번호 : 2, (3), 4, 7, 8, (10), 11, (12), 13, 18, 19, 20

* 이외에도 지식형 문제이지만 일부 <보기>나 선지 중에는 독해로 해결 가능한 것들도 있음.

Part II Zola 풀이 1

1차적 풀이 - 답을 맞추기 위한 풀이 (현강 참고)

Part II Zola 풀이 2

2차적 풀이 - 수능을 대비해서 관심을 뒤야 할 문항, 제시문, 선지!

6평 성적은 내년에 재수학원 등록할 때에 필요하다. 심지어 어떤 재수학원들은 6평 성적을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올해 입시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의 평가원 성적이다. 11월 평가원!! 11월 평가원을 위해 주의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5번 ①, ②

☞ **Zola Guide** 윤사하는 친구들한테 쉬운 선지이다. 또한 윤사처럼 가르치는 강사한테 들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선지이다. 다양한 윤리학 이론 부분은 생윤이 아니라 '윤사'다. 한 번 제대로 뒤집어 질 때가 있을텐데 그게 올해의 너희들이 아니길 바란다!

①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ebs 수특 29쪽 1번 ④] 도덕적 행위를 위해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윤사 기출 선지 모음]

공감이라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경향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②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ebs 수특 29쪽 1번 ③] 도덕적 행위는 정언 명령의 형식에 부합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ebs 수특 31쪽 6번 제시문]

도덕성은 내면적인 것이다. 도덕적 명령은 “이런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한 행위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위자의 구체적인 성품에 주목해야 하며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ebs 수특]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Zola 프린트 1-3-5쪽 확인!)

칸트의 윤리는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배제하고 보편화 가능한 순수한 윤리의 형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형식주의란 칸트가 도덕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도덕 법칙에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 9번 ㄷ

ㄷ.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Zola Guide 평가원의 출제 원칙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8-수능-11번-ㄱ]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p> <p>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나)	

— < 보 기 > —

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낸다.
 ㄷ. C: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D: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작년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보기가 표시된 ㄱ다. 그런데 이 선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교과서(교육과정) 이탈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출제진은 정확한 풀이인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정오답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평등의 원리’와 ‘모든 동물’이 그 부분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여튼 평가원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오답’이 되는데 문제 없게끔 선지에 여러 개의 보조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문제를 보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인간)+동물

여전히 오답이다.

그런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전의 선지와 달리 전혀 문제가 없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동물만 해당하므로 을(인동식무를 도덕적으로 고려함)과 병(인동을 도덕적으로 고려함)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이 부분 ‘만’ 놓고 보면 정답이 된다. 결국 작년의 안전 장치들이

다 제거되었다. 이제는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가 공식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결국 평가원은 맨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이탈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정답이 되는 선지들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미리 걱정하면서 지엽의 지엽을 공부하는데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기출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면 **교과서를 이탈하는** 지엽적 사실들을 가르치는 셈들을 가급적 '배제'하길 바란다.

하지만 기존에 출제된 것들은 이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속한다. 제시문과 선지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선지들만 분석하는데, 적어도 킬러 주제들의 제시문들은 그 자체가 새로운 선지의 후보들이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3) 14번 ㄱ, ㄷ

ㄱ.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ㄷ.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 **Zola Guide** 이 문제는 Zola가 zola 걱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킬러 주제치고는). 다만 이 문제를 통해 앞으로 노직이나 롤스는 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ㄱ.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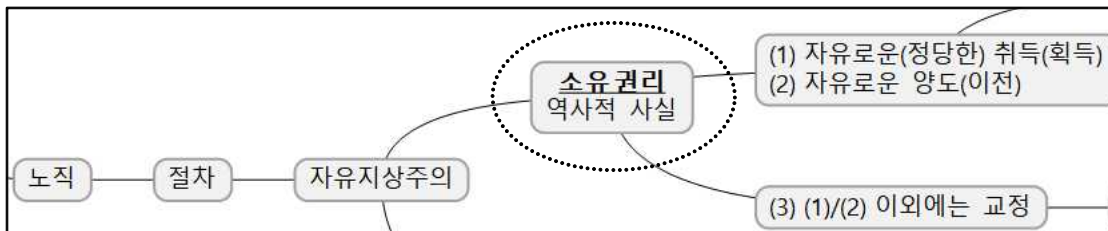
이 보기는 노직의 교정의 원리를 떠올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인 노직에 의하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면 굳이 교정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기는 그 이상의 내용을 전달한다. 다음을 보자.

[16-수능-14번-제시문]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위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아래 필기는 Zola의 수업 필기 내용 중 일부이다.



○ 부분이다. **역사적 사실로서 부정의한 취득과 이전이 존재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정이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도 알아야 한다. 평가원은 이제 경고 하나 보내줬다. 17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19번 정답률이 23%였는데 그 문제가 롤스·노직 문제였고 노직 관련 선지 하나(해당 문제의 보기 ⇒)때문에 킬러 문제가 되었다. 물론 그 선지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내용이 나온다(해당 문제를 틀린 윤사 선택자들은 교과서를 잘 보라. 적어도 교학사 교과서에는 나온다.)

하지만 이번 6평 문제의 꺾 선지의 이론적 배경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는 없고 기출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생운 과목이 욱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교과서가 다른 과목에 비해 부실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교과서는 유용한 참고 자료이다.)

Zola가 생운 양치기 하지 말고 기출 제시문 잘 확인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 ㄷ을 보자.

ㄷ.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롤스를 어렵게 내려면 **롤스의 이론 중에서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니라고 물어보면 된다.**(작년 Zola Cival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니 정답률이 땅 밑으로 파고 들었다.) 물론 이것은 Zola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 윤사에도 있고 생운에도 있다. 다음 문제를 보자.

19. 다음은 롤스(J. Rawls)의 '정의의 원리'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첫째,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하며, ㉡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

① (가)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

② (나)의 ㉠은 차등의 원칙이다. ↓

③ 롤스에 따르면 합리적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가)와 (나)에 동의한다. ↓

④ ㉠에 의하면 소외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

⑤ ㉡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과에 있어서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이 문제는 윤사를 꽤 공부한 친구들도 '처음' 보는 문제일 것이다(물론 그렇다고 틀린다는 것은 아니다.) 05학년도 수능 문제이다. 2004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에도 놀랍게도 (Surprise!!!) 수능이 있었고 윤리에서는 롤스를 배웠다. 더 놀라운 것은 Zola도 고등학교 때 롤스를 배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면 롤스의 이론을 제시하고 각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롤스는 어떤 개념이 중요해라는 식의 단순 암기나 롤스는 다른 사상가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이 특징이야라는 식의 비교법으로는 풀기 곤란한 문제들이다. 물론 출제자의 난이도 조절에도 영향을 받는다. 참고로 위 문제의 제시문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6년 ebs 생활과 윤리 수특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6[16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사회 정의의 역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 *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 (중략) ...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

<보기> ↓

- ㄱ. 여러 사회 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 ㄴ. 효율성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한다. ↓
- ㄷ. 사람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 ↓
- ㄹ.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한다. ↓

이 문제를 보면 롤스의 '사회 정의'에 대해 묻고 있다. 게다가 보기 ㄷ은 실제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다.

17-9평-8번-③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이 때 정답률은 43%였다. 롤스가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이기주의'인데 왜 협력하냐고 항의(?)하는 banana들이 많았다. 롤스의 '가상 상황' 부분과 가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현실 상황'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banana들이었다.

이제는 고난도 '기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는 익숙한 혹은 고난도 킬러 선지 정도로 암기하고 있겠지만 그런 단순식의 암기로는 새로운 킬러 선지들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처음' 나오는 선지가 어려운 법이다.

사족이겠지만 **공부 좀 하는 수험생들이 '처음' 나오는 선지의 무서운 법을 모른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 잘 풀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인의 진짜 실력이라고 착각한다. **강사가 이미 고난도 킬러 선지를 영두에 두고 하는 강의를 잘 따라와서(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거겠지만) 맞춘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정답률 20~30%는 '처음' 나온 선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 번 나온 선지는 어렵지 않다. **banana와 human의 차이는 처음 나오는 선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43%의 정답률을 보여준 선지가 18-6-10번-<보기> ㄷ에서 재활용되었다. 이 때에는 문제 정답률은 51%였고, ㄷ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수험생은 무려 82%였다.)

여튼 노직이나 롤스와 같은 일부 사상가나 개념들(대개념-소개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직도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이번 6평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역으로 쉬워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제자 마음이다. **우리는 그저 최악을 대비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지엽이 아니라 사상가들의 이론이나 개념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다. '교과서+기출 제시문·선지+ebs 수특·수완' 수준에서 최대한 통합적인·체계적인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 단편적인 학습을 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킬러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여러 사상가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한 친구들과 각 사상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과의 차이가 드러날 여지도 남아 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단순 지식을 잘 정리해주는 강사가 유용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자, 탐구를 '대립 구도'로 해결하려는 학습법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립 구도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립 구도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세상에 어느 한 가지 학습법이 전부인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17학년도 윤사 선택자들이 다른 해의 선택자보다 바보여서 노직에서 평가원한테 당한 것이 아니다. 통수 맞는 문제들은 매년 나오지 않고 가끔씩(?) 출제가 된다. 그것이 올해 여러분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겁(?)을 주는 풀이를 하였다.

Part III 주제별 기출 목록

대단원	너네들의 암기 목록임!!!!	작년			올해!	
		6평	9평	수능	6평	9평
I.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	(1) 윤리학의 구분	1		1	1	
	(2) 다양한 윤리학 이론	2, 5, 6	1, 3	5, 10, (13), 14	5, 12, 15	
II. 생명·성·가족 윤리	(3) 죽음관	8	4	4	11	
	(4) 가족 관계(유가)		7	2	8(+4)	
III. 과학기술·환경·정보 윤리	(5) 동양 자연관					
	(6) 환경윤리(서양 자연관)	15	9, 16	11, (19)	9	
IV.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7)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13)	13	
	(8) 분배 정의	10	11	9	14	
	(9) 사형제도	19	17	16	6	
	(10) 인권 개념의 변화			20		
	(11) 시민불복종	12	8	3	16	
	(12) 직업관	14	13	12	3	
V. 문화와 윤리	(13) 다문화에 대한 태도				7	
VI. 평화와 윤리	(14)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15) 해외원조	3	18	18	17	
	(16) 전쟁론과 평화론	17	15	7	18	
	(17) 국제관계이론					
출제? V	(18) 문명충돌론, 문명공존론					
기타	그 외 주제	나머지 (8문제)	나머지 (8문제)	나머지 (4문제)	나머지 5문제	
	주제 통합형	×	×	(13), (19)	×	